

독후 활동지

# 플라스틱 섬 수나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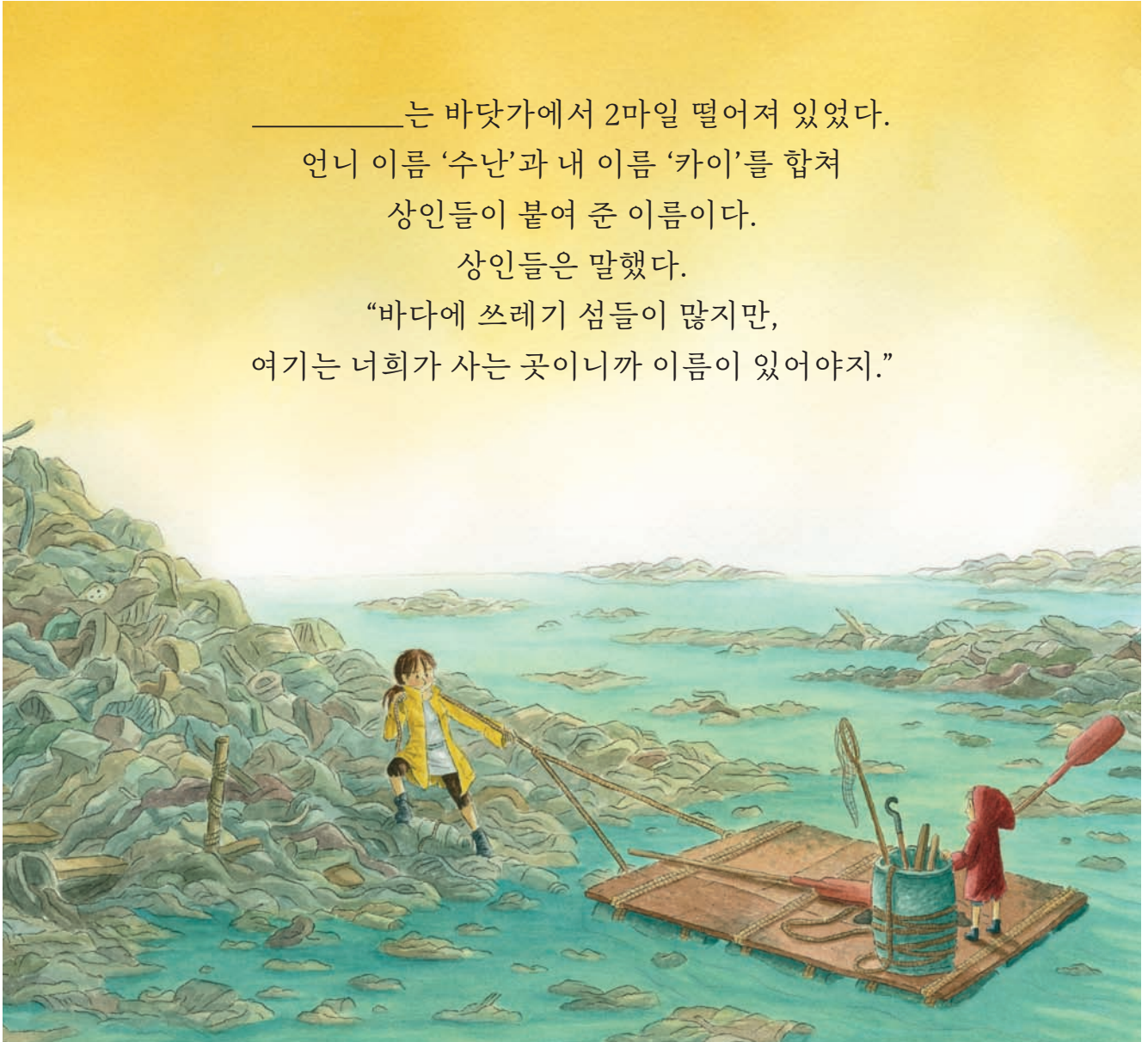
메리첼 마르티 글 | 사비에르 살로모 그림 | 성초림 옮김



봄의정원

아래 글을 읽고 빈칸을 채워 보세요. 이 책의 제목이자 수난과 카이가 살고 있는 플라스틱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_\_\_\_\_는 바닷가에서 2마일 떨어져 있었다.  
언니 이름 '수난'과 내 이름 '카이'를 합쳐  
상인들이 붙여 준 이름이다.  
상인들은 말했다.  
“바다에 쓰레기 섬들이 많지만,  
여기는 너희가 사는 곳이니까 이름이 있어야지.”



카이는 상인 아저씨에게 무엇을 주고 물고기를 샀을까요?  
아래 글과 그림을 보고 추측하여 맞춰 보세요.

“얼마면 돼요?”

나는 언니의 당당한 말투를 흉내 내며 물었다.

아저씨는 내 손목 위 \_\_\_\_\_로 눈길을 돌렸다.

\_\_\_\_\_는 유리병 속 물고기만큼이나 반짝거렸다.



이야기 이해하기 3

아래 글은 카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생명체에 죽은 물고기를 놓아주자 일어난 일이에요. 글을 읽고 그림을 순서대로 배열해 보세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곳이였다.  
유일하게 생명체가 있는 곳.  
나는 그곳에 물고기를 놓아주었다.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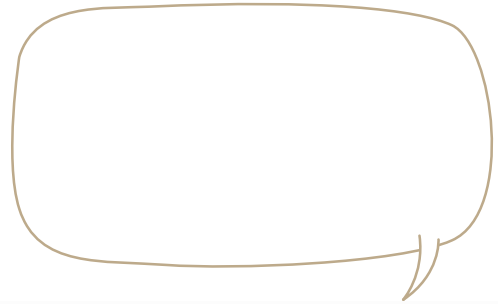
물고기가 카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물고기가 되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야기 상상하기 2

엄청난 지진과 파도가 수나카이를 쓸고 간 뒤 카이가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어요. 말풍선에 채워 보세요.

카이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상상하여 채워 보세요.





## 새로운 수나카이 만들기

쓰나미가 몰려간 뒤 바다가 숨을 쉬고 물고기가 돌아왔어요.  
수난 언니를 찾아 헤매던 카이는 다른 섬에 살던 친구들도 만났어요.  
수난과 카이가 살던 플라스틱 섬의 집도 새롭게 단장해 볼까요?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태양열 지붕도 만들고 또 어떻게 변신시켜 볼까요?

